



영성의 바다 (1) 잘못된 영성과 그 원인

성인경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도 영적일까요? 나는 한 때, “말도 안돼.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영적이라면 물 마시는 것도 영적이겠네.”라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고,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과연 물 한 마시는 것과 차 한 잔 마시는 것은 영적이 아닐까요?

이처럼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의 성격'이라는 말의 준 말이며, 기독교 신앙과 영적 체험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일체의 문제를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 연구는 우리의 영적 체험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가?' 보다는 '얼마나 바르고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칼라와 성격의 다양함을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신학적으로 그 타당성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영성의 바다 여행을 떠난 믿음의 순례자에게 맞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바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침반이나 로드맵이 잘못 되면 잘못된 항구에 불시착하게 되는 것처럼, 영성이 잘못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흩뜨리러지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는 성경적인 바른 영성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시대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영성의 다양성과 혼돈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영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동시에 영성이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영성에는 매우 한국적인 영성도 많고 비기독교적인 영성도 깊으나 성경적인 영성은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만큼 엉뚱한 영성들도 많고 이상한 영성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혼돈과 방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정표나 지도가 틀린 것도 모르고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성의 다양함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게리 토마스(G. Thomas)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CUP]는 책의 서평을 요청받고, 처음 몇 장을 읽고 난후에 포스트모던 시대에 딱 맞는 “말랑말랑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어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씩 넘기며 더 흥미진진해졌고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는 마치 내가 잠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시 동안 주님과 형형색색의 꽃이 핀 비원을 거닐다가 온 듯이 가슴이 벅찰 정도로 영적 황홀경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주의 영성: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2. 감각주의 영성: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3. 전통주의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4. 금욕주의 영성: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5. 행동주의 영성: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6. 박애주의 영성: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7. 열정주의 영성: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8. 묵상주의 영성: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9. 지성주의 영성: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첫째, 이 책은 영성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가를 일깨워줍니다. 저자는 그동안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영성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아왔고, 그것이 영적 문제와 탈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영성 중에서, 아홉 가지 대표적인 영성의 특성과 그 위험성을 잘 소개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자연주의 영성”과 “묵상주의 영성”과 같은 것들을 발굴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라브리에서 자주 주장하는 “예수 안에서는 죄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이다”는 말을 잘 입증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건주의 영성이나 이원론적 영성과 같은 것은 비중 있게 취급하지 않고 다른 영성 속에 포함시켜버림으로 한국 독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이 책은 자기의 기질에 맞는 다양한 영성의 칼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기질에 맞지도 않는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 성장도 없고 신앙생활에 생산성이 없어서 열매도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286쪽) 특히 자기 영성의 색깔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비교하거나 불평해대는 편협성에서 벗어나서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이 다르다고 해서 영성까지도 “성격과 기질에 맞게 찾아야 한다.”(42)거나, 우리의 기질이나 영성마저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라”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현대 심리학의 결정론적 성격 이론을 지나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부 신앙 인물의 단면을 보고 특정 영성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란시스 슈퍼(Francis A. Schaeffer)인데, 그의 평생을 보면 지성주의 영성이 매우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영성가로 단정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셋째, 이 책은 신앙의 연륜과 성장에 따라서 누구나 영성의 '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금욕주의 영성에서 출발했지만 특별한 계기를 맞아서 지성주의 영성으로 갔다가 그 후에 다시 경건주의 영성으로 전환되므로 풍성한 영적 체험을 했다

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영성을 체험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각종 영성을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성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28쪽)는 저자의 영성 개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영성의 다양한 방식”은 본질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성의 본질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실존적인 관계 그 자체에 있지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방식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영성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로 보고 여러 가지 영성을 소개하는데, 자칫 이런 방법론적인 접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관계 자체를 소홀히 하는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영성의 위기

영성훈련의 각종 비결들을 들어보면 한 편 감사하면서도 영성의 능력과 성숙보다 모양과 방법에 치우치는 것은 자칫 진정한 영적 체험은 도외시한 채 텅빈 영적 테크닉과 기교만 앞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만약 하늘에 별들의 무덤이 있다면, 영성의 ‘무덤(black halls)’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영성의 무덤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째, 괴물 같은 영성은 외식적인 영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직면하고 있는 영성의 위기는 바울 사도가 경고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데 있습니다(디모데후서3:5). 즉 신앙의 형식은 화려하고 번지르하면서도 실제로 신앙의 실체가 없는 삶을 사는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영성을 ‘괴물같은 영성(ugly spirituality)’이라면 지나칠까요?

괴물 같은 영성은 신앙과 윤리를 ‘거꾸로’ 하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용이 되거나, 윤리가 사람들을 향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선행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고백하여야 하는 신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공개되고, 이웃에게 실천되어야 하는 윤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와는 달리 완전히 ‘거꾸로’ 된 영성입니다. “신앙과 윤리가 거꾸로 된 외식적인 영성”(John Stott)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가지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래 구제, 기도, 금식, 헌금은 신앙적 표현으로 구분되었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비밀리에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과시용으로 행했습니다.(마6:1-21)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나타내는 것 등의 윤리적인 행위들은 이웃이 다 알도록 공개리에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는 선행적 행위들로 변질시켰습니다(마5:13-48). 그 밖에도 그들은 고차원적인 영성 훈련을 핑계로 얼마나 많은 각종 율례와 규칙을 설정하고 복종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요즘 연륜과 직분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앙과 윤리를 도치(倒置)시켜 살기 때문입니다. 괴물같은 영성은 “모래 위에 지은 집”(마태복음7:24-27)이 홍수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

듯이 영적 붕괴 현상을 자초하고 말것입니다.

둘째, 괴물 같은 영성은 비인간적인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성과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고고하게 신비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일하던 교회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디모데전서4:3)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디모데전서4:2)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 영성은 비인간적(非人間的)인 영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들 혹은 온갖 탁월한 영적 은사를 가졌으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신령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쫄쫄하고 쩌쩌하고 인간미도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자아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높은 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목사들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눈이 무서워서,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의 욕이 무서워서 조심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을 사모와 자식들에게 풀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목회자 가정이 윤리의 사각지대, 즉 자녀들이나 부인과 의 사이에 다툼이 찾아지거나 온갖 가족간의 문제로 씨름하거나, 기도와 말씀이 죽어가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비인간적인 영성의 행태를 타 종교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비인간성은 타종교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성과 언어 그리고 섹스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 | 불교, 유교, 도교, 무속 | 기 독 교 |
|-----|----------------------|-------------|
| 지 성 | 무용지물이므로 마음을 비우라고 한다. | 뜻을 다하라고 한다. |
| 언 어 | 신과의 대화에 최선의 방식이 아니다. |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
| 성 욕 | 거룩하지 못하고 악하거나 추하다. | 거룩하고 선하다. |

인간성을 비하하고 천하게 보는 것은 타 종교에는 인간 존재 자체의 정체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금욕적이고 부정적인 영성입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영성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지혜롭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Ranald Macaulay)입니다.

셋째, 괴물 같은 영성은 반지성적인 영성입니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반 지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의 체험이나 느낌이 절대 시되는 실존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적인 지성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식은 신앙에 방해가 된다든지 학문은 신앙의 적이라는 말들이 은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있는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을 잘 반영하는 말입니다. 미국교회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

나 바벨론 사람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David Bradshaw)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지성주의의 결과는 고린도교회에서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고린도 후서 2:17) 상황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섞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사상을 섞어서 지적인 혼돈을 야기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유대 사상과 세속적인 헬레니즘 철학이 기독교 지성과 섞인 혼합주의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학교 홍일식 전 총장은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한국인은 유교적인 사회생활의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명상과 사색은 불교적으로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원시종교, 곧 샤머니즘으로 돌아간다.”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영성이 다분히 혼합적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성격이 교회에서도 제대로 개혁되지 못하고 잘못된 영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왕성한 이유도 알고 보면, 그런 잘잘못을 분석하고 건전한 비판을 해 줄 수 있는 지성적인 영성을 배격한 ‘반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처한 위기 중의 하나도 지적 혼합주의와 반 지성주의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 자살(intellectual suicide)’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과 학문을 분리시키고 기독교를 비지성적인 종교로 전락시키고 전도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타조의 처세술’을 배워서 사막의 왕이라는 타조가 맹수들의 도전 앞에서는 머리를 모래 속에 처 박았다가 맹수들이 지나가고 나면 고개 들고 설치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과 학점을 위해서 이 처세술이 필요하다고 하고 직장인들은 회사의 경영철학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도 이 처세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처세술은 지적 타협이요 배음입니다.

넷째, 괴물 같은 영성은 염세적이고 반사회적인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진지하다 못해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염세적이기까지 합니다. 영적이 된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멀리 도피하거나 평범한 인간사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의 힘든 영적 전투를 포기하고 기독교적인 고립 문화 속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브리에 왔던 어떤 청년은 신문도 안보고, 텔레비전도 안보고, 영화도 안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금하고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때에는 어김없이 가스펠 송이나 찬송가만 즐기곤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1세기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현대 교회에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분히 ‘염세적이고’, ‘금욕적이며’, ‘더 높은 영적 생활(super spirituality)’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골로새서2:16-22)

다섯째, 괴물 같은 영성은 성령주의 영성입니다.

요즘 일부 교회는 성령 충만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중에 서구에서 일어난 빼뚫어진 성령운동 중에는 빈야드 운동(Vineyard Movement)이나 토론토 축복(Toronto Blessing)이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도 수입 내지 유사 운동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은 교회 부흥의 성경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운동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적과 기사를 신약의 교회 운동, 혹은 성령 운동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비성경적인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성령 체험에 열광하다가 성장을 멈춘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잠깐 흥분시키고 자극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이단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화 시키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과 친밀함으로 이끄시고 그 분의 뜻과 목적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시며 자비로운 사역으로 인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두 축인 “신령과 진정(성령과 진리)”에서 성령으로 인한 말씀의 능력을 제시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이고 근본정신인데, 성령운동은 이적과 기사가 지나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므로 종교개혁의 전통을 단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이 사역하시는 다양한 능력과 그 변화를 억압하거나 무조건 반대해서는 곤란합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진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지만 은사가 교회의 순수성을 어지럽히거나 ‘하나되게’ 함을 해치는 역사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성령주의 혹은 영성주의에 반해 제자훈련이나 영적 생활의 기본기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영적 생활의 ‘기본기’가 잘 됩니까? 규칙적인 기도생활, 규칙적인 성경묵상, 규칙적인 성도교제, 규칙적인 봉사활동 등 ‘기본기’가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본기’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방법보다 성경적인 영성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바른 영성을 갖는 것이다.

잘못된 영성의 원인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건의 능력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만을 가꾸는 신앙생활은 이를 테면 안테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영적 허구와 사치에 빠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영성을 가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흔하면서도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세 가지 원인과 그 결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영성은 동양 종교에 제일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동양 종교에 깊이 입문하거나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원하는 원치 않던 동양의 각종 종교성은 은연중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세계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요 한국 문화의 토양인 도교와 불교와 유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려대 총장을 지내신 홍일식 박사는 그의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불교적이고 생활 방식은 유

교적이고 신앙생활은 무속적이다. 기독교인들도 다를 바가 없다.” 역시 우리에게 3대종교가 문제입니다.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한국교회의 영성의 뿌리는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그 원조는 도교(道敎 Taoism)의 체도(體道 embodying the truth)에서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그들의 진리 인식방법은 다 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직관을 따르라 Let intuition lead you

무위를 행하라 Let not yourself do anything

허심을 가지라 Let your heart be empty

불교의 영성, 즉 불심(佛心)은 ‘번뇌의 숲’이 사라진 정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번뇌의 숲은 삼독(三毒)이라 일컬어지는 탐(욕심 내는 것), 진(성내는 것), 치(어리석은 것)를 말합니다. 이것을 불어 꺼 버린 상태를 열반(Nirvana = nirṇā + vana불다)이라 하며,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선(參禪)에 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선의 방법들은 매우 염세적이고 금욕적이고 외식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불교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고 있는 고(古) 성철 스님은 10년을 말하지 않고 8년을 누워서 자지 않고 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외출 외에는 한 평생을 산 속에서 사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고개 숙일만한 경건의 훈련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불도가 그가 결혼한 아내와 딸을 두고 불교에 귀의한 것을 일컬어 “나는 10원 짜리와 100원 짜리를 바꿀 수가 없었다.”는 말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영성의 특성은 염세적이고 금욕적이며 외식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교(儒敎)는 교회의 반지성주의적인 영성을 부추깁니다. 유교는 인간의 완성은 ‘자의식’으로 자신의 윤리적 자아를 깨닫는 것이며 이것이 최종적인 지식의 가치라고 가르칩니다. 공자의 [논어]에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는 말이 있는데, 공부해서 윤리적 자아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었으며, 거기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지성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멈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은 욕망과 감정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고(至高)의 지식과 진리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교에 있어서 인식의 주체는 이성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마음은 감성 혹은 직관을 말합니다. 맹자는 그것을 ‘정(情)’이라고 불렀고 인간의 순수 감정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심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의 감정인데”, 김용옥은 이를 일컬어 “창조적 감정(creative feeling)”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기반은 동양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동양인은 자연과 인생에 대해 분석적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추리적이 아니라 직각적, 조직적이 아니라 개괄적, 이지본위(理智本位)가 아니라 정서본위(情緒本位)이다.” 이런 인식론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는, 청년들의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그 남자는 느낌이 없어 싫어요.” 혹은 “그 여자는 마음이 안 통해서 싫어요.”라는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영성 혹은 영성훈련비결들은 불교나 유교, 혹은 정령승배자들의 가르침을 답습하는 예가 많습니다. 온갖 규정을 만들어 놓고 종교적 숭배심을 조장하거나 거짓된 겸손으로 역지를 부리거나 습관적으로 몸을 괴롭히는 것 등을 강요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판단력이 마비되고 분별력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주로 기독교적인 지성을 무시하고 감정이나 순간적인 직관에 의해 결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교나 유교적인 인식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영성은 매우 영적인 것 같으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골로새서2:23) 것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괴물 같은 영성은 서양적인 이원론 사상 때문입니다.

이원론은 서양에서는 플라톤(Plato)의 철학에서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의 워치만 니(Watchman Nee)를 따르는 영성주의자들과 서양 철학의 유입으로 인해 대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론이 철학사와 교회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구태여 여러 학자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화이트헤드(A.N. Whitehead)가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각주(footnote)에 불과하다”고 한 말로도 충분합니다. 서양에서는 종교 개혁 기간을 빼고는 기독교와 정치 사회 예술 등에서 이원론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원론은 이 세상을 ‘물질계’와 ‘정신계’로 양분합니다. 물질계에는 인간의 육체, 감각, 이성이 속하며 이것들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그림자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정신계에는 영혼, 혹은 정신이 속하며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원형이며 이데아(Idea)라고 생각합니다.

영성과 관련하여 이원론은 부정적 영성과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낳았습니다. 이원론때문에 입은 가장 큰 피해는 물질계에 속한다고 하는 것들을 비영적으로 취급하거나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인간의 말과 생각은 사라지고 침묵과 명상이 중요시되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인간의 언어는 신과의 대화를 위한 최선의 도구로써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육체를 학대하거나 금욕을 조장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자들(Gnostics)은 ‘정신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성은 금욕을 극대화하고 비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를 역사신학자인 하르낙(A. Harnack)이 “기독교를 철저히 헬라화한 것”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요즈음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 수면, 휴식, 놀이 등을 비영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고 엄격한 기도와 금식으로 그것을 다스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즐기는 영화나 음악 감상 등을 멀리하기 위해 성경이나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수 백번씩 반복해서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잡념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의 얼굴이나 십자가를 머리 속에 그려보는 훈련을 통해 명상에 몰입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 빛을 향해 촛불을 밝히는 것”(J. Barrs)과 같은 무모한 영적 장난입니다.

셋째, 잘못된 영성은 현대신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학과 철학이 공모하여 반지성적인 영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감

정의 신학자로 불리는 슈라이어마허(F.Schleiermacher, 1768-1834) 입니다. 그는 “종교는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며 형이상학이나 도덕도 아니며 그 합성도 아니다. 종교는 우주의 직관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인간 정신의 본질적 필연적 제3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학 방법론에 '감정 신학'이란 혁명의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감정은 “절대 의존의 감정(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을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즉 감정은 행동과 사고에 앞서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기능이며 내면적인 것인데 이 감정은 자아를 초월하는 자의식이며 감정의 자리로서의 신 의식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해 두 가지 큰 변화가 따라 오게 됩니다. 그 하나는 성경을 신학의 틀로 삼던 지금까지의 방법론에서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기초로 하는 주관적 방법론으로의 변화입니다.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주관적 방법론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잘못된 영성은 현대 철학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S.Kierkegaard, 1813-1855)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신앙을 “믿음의 비약”으로 추락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막스(K.Marx, 1818-1883)도 “종교는 자기 자신을 아직 잊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린 인간의 자기 의식이고 감정이다... 종교는 인간의 자기 감정이며 억압받는 자의 한숨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신학과 철학이 함께 '신앙은 지성과 대립된다'고 몰아부쳤고, 그 영향으로 '지성은 신앙의 방해물'이라고 하거나 '지성은 영적인 체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결국 기독 신앙의 본질은 반지성적이며 이성과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영성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영성에 사로잡혀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형식적 종교생활에 빠져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웨퍼의 경고가 새삼스럽게 중요하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적 실체도 없으면서 교회의 제도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마치 영적 능력이 살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쉬운 시대이다.” (Francis A. Schaeffer)